

# 기술 업무의 미래

기업에서의 Risk management 한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종류의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라도 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시에도 그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마련하기 위한 operational program 이라고 정의된다. (FM : The Handbook of Property Conservation, P 2, 1974)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경감)하기 위한 예로 화재 예방, 수방(水防) 대책 마련, 도난 방지 프로그램 등등을 들 수 있겠고, 피해 복구 마련을 위한 방책(소위 轉嫁)의 예로는 보험 가입을 들 수 있겠다. 이 외에도 risk 의 "기업내 보유"라 할 수 있는 "attention"이 있으나 이는 "정가"와 유사한 발생(發生)이라고 생각된다.

Factory Mutual 과 같은 기업에서는 이보다 진일보한 Property conservation 이라는, 그들 나름의 "상호"와 같은 프로그램을 선전한다.

근래 우리나라 여러 기업체에서 Risk management 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관심이 일기 시작한 Risk management 가 왜 최근에 와서야 겨우 우리 주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을까? 그 것은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최근까지 어느 정도 진근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해석된다.

그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Risk management 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그 중요성이 알려지게 됨에 따라 앞으로 Risk manager 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할까, 다시 말해 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리라는 것만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Risk management 라고 하는 이 생소한 분야를 성공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 분야가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그 범위도 상당히 넓어서 단기간 내에 그 원리를 마스터하기가 곤란한 까닭이다.

주관적인 이야기 같으나 Risk management 의 high light 는 역시 fire protection 과 insurance 가 아닌가 한다. 이 두 분야에 정통하면 Risk management 전반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용이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분야에 골고루 정통한 사람이 우리 나라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만약 있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말할나위도 없이 우리 협회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fire protection 이나 insurance 가 공히 낯익은 분야들이다. 또한 적지 않은 시간에 걸쳐 경험도 쌓았으므로 그들이야말로 Risk management 분야의 개척을 담당할 만한 자격과 여건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진 셈이다. 우리 협회의 안전점검 방향도 미래에는 각 건물의 Risk management 들 효율적으로 돌보는 데 앞장서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도 되는만큼 기술업무의 미래는 밝은 것이 아닌가 보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 보험업무에서의 기술 활용도가 점차로 높아 가고 있는 현상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FM 이나 Munich Re 과 같은 사례가 모델 케이스라 하건디와, 이들 회사 외에도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American Mutual Insurance Alliance, Industrial Risk Insurers(구 FIA), Kemper Insurance 등이 모두 기술 활용으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온 사실을 볼 때 우리 철회 기술업무의 장래는 양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낙관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더 헌身的 노력과 연구 없이는 모든 것이 결코 "굴러 들어오는 떡"이 될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